‘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신명기 22:1~30)

1.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5.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6.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8.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리 오너라! / 네가 오너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리 오너라! / 네가 오너라!’

특별히 조선시대에 남의 집을 방문한 양반이 대문 앞에서 그 집 사람을 부를 때에 외치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양반집들을 보면 제일 안쪽에 안채가 있습니다. 부부가 머물고 그 집의 안주인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삶의 공간입니다. 바깥쪽을 향하여 안채에 붙어서 벽을 사이에 두고 독립적으로 사랑채가 있어서, 바깥주인이 머물면서 객들을 맞이하고 집안의 일을 살피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대문 가까운 곳에 행랑채가 있어서 머슴이나 하인이나 노비들이 머무는 생활공간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손님이 와서 대문 앞에서 소리를 치게 되면, 지방에서 작은 벼슬아치를 하던 양반이든 아니면 대단한 권세가 있는 대감이든 사랑채에 있던 주인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대신에 행랑채에 머물던 머슴이나 하인이나 노비들이 뛰어나와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서 영적으로 귀중한 비유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눈이나 귀의 감각기관들이 나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대문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대문들을 통해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사건이나 일이나 내게 주어진 상황의 대상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눈의 대문을 통해 가족이라는 대상을 만나는데, 그 대상들은 반드시 나를 향하여 대문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며 내 마음을 찾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눈으로 마주 대하는 모든 대상들이 나를 향하여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며 다 내 마음을 찾습니다.
이때에 선민은 절대로 내 눈이나 귀의 대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을 향하여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따라서 쪼르르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리 오너라!'라고 부를 때에 뛰어나가면 마음을 자녀에게 빼앗기는 것이고,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이리 오너라!'하고 외칠 때에 내 마음이 뛰어나가면 내가 아직도 행랑채에 머무는 노예인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선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행랑채에 머물고 있는 사탄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이고 몬스터와 같은 악한 죄성의 노예입니다. 이들은 행랑채에 머물고 있는 머슴이고 노비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보자면 선민인 딸자식은 안채에 머물러야 하고, 장성한 아들이라면 사랑채에 머무르면서 아버지를 돕게 됩니다. 사랑채에 있는 아들은 절대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이 내 눈의 대문 밖에 서서 부르든지 귀의 대문 밖에 서서 부르든지 5감각의 대문 밖에 서서 '이리 오너라!'라고 부를 때에 내 마음이 쪼르르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죄성의 노예상태인 채 대문 밖에서 '이리 오너라!'라고 찾는 대상들을 만나게 될 때, 영적인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뛰쳐나간다.'는 것은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노예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눈의 대문, 귀의 대문 밖의 대상들과 만나게 될 경우에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말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요즘 새로 나온 아이돌 그룹 중에서 "iKON"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신곡을 발표했는데 노래 중에 "이리 오너라!"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좀 막장 분위기의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가사인지 제가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봅니다. 노래 가사에 자기들 이름이 들어갑니다.
'iKON is coming to town'이라는 영어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아이콘이 시내에 납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젊은이들에게 명동, 홍대 앞, 신촌, 강남, 이태원 등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시내에 납신다.'는 영어가사에 이어서 '이리 오너라! 날고 기어도 다 씹어 먹어줄게'라고 하는데 이게 노래인지 뭔지 알 수 없는데, 이 그룹의 소속사 사장님은 최고의 노래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다 긴다.'는 말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iKON 그룹이 시내에 등장하기 전 까지는 날고 기는 잘난 놈이 있었을 텐데, 이제 우리가 나타나므로 '이리 오너라! 난다 긴다 하는 놈들 내가 다 씹어 먹어줄게'라고 하고 또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하면 '누구든 안심하는 순간 바로 내게 먹혀'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요. '날고 기는 놈들을 다 씹어 먹어준다'는 말이나 '누구든지 내가 이쯤 되면 이 환경에서 최고로 잘난 사람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나타나서 당장에 너를 씹어 먹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 오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얼쑤 덩기덕쿵더러러러' 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의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옛날의 분위기에 얽혀있는 언어를 오늘에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패기가 넘치다 못해서 거의 막가파수준인데, 여기서 '날고 기어도 다 씹어 먹어줄게 / 누구든 안심하는 순간 바로 내게 먹혀 / 이리 오너라 게 아무도 없느냐 얼쑤'라고 하는 도저히 민망해서 들어줄 수 없는 이 가사 속에 사실을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의 문맥으로 바꾸면 자식이 눈앞에 보이면 자식이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고 순응한다면 씹어 먹히는 것이고, 끌려가는 이유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타락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머슴이나 하인들이나 노비들이 행랑채에서 '이리 오너라!'라는 소리에 불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존재자체가 아직도 노예근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게 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데 우리 마음이 씹어 먹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이고, 마음과 뜻과 힘이 다 하나님께 가있는 상태가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순응하면서 '마음을 주고 있다'면 노예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오너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네가 오너라!'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 때에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마음이 반응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규례들이 단편적으로 나열되어서 제시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규례들인 것 같지만 하나의 몸부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부림'이라는 것은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대해서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대문들 밖에 서서 내 마음을 불러내기 위해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는 대상들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모세가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연관성 없는 규례들을 하나의 줄기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11절 앞부분과 12절 이하의 30절까지의 내용을 다 붙잡고 있으면서 통일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긴 직사각형의 천에 목이 들어가는 구멍을 낸 것과 비슷한데 네 귀퉁이에 술을 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12절의 끝부분에 ‘술을 만들지니라’라고 끝나는데, 우리가 이미 본 민15:38~39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하십니다.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을 레일처럼 깔아놓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이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레일 위를 달려가야 하는데, 그 레일 위를 달리지 못하고 탈선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이 ‘방종’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이성간의 탈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결국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접촉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눈이 보는 것들이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외침을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아서 ‘지금 내 눈의 대문 앞에 서서 내 마음을 향하여 이리 오너라! 라고 외치는 대상을 향해 따라가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 화학반응을 통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레일로 깔아두셨다는 것을 옷 술을 보면서 기억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 술에 대해 설명하시고 민15:41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는 것은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 내셨다’는 것이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된 선민이라면 절대로 ‘노예나 머슴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나 머슴이 하는 일은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는 세상의 부름에 쪼르르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가 다 이 노예근성과의 싸움과 몸부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노예근성은 눈의 대문, 귀의 대문 등 5감각의 대문 밖에 서서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는 세상의 대상들을 향하여 뛰어나가려는 것입니다.

1~4절의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못 본 체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

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라고 하십니다. 형제는 아직 자기의 가축이 길을 잃었는지 모르고 있는데, 아직도 노예의 근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마음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고 그것이 네 마음을 향해 '이리 오너라!'라고 외칠 때에 네 눈의 대문 밖에 서있는 '네 형제의 길 잃은 가축으로 뛰어가지 말라'는 것이고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이고, 그 가축들의 외침의 '이리 오너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배후에 '마귀의 외침이 있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고 하신 것도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이성간의 탈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이성의 대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동질화의 대상으로 좋아합니다. 그 남자를 이성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남자처럼 돼야지.'라고 하고 또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눈으로 보면서 동화 되어 가는데 '동질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나가 많은 집의 외아들이 여성적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반대로 오빠가 많은 집의 외딸은 남자처럼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남자 같은 여자도 여자이고 여자 같은 남자도 어쨌든 남자입니다.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전하고 있는데, 눈으로 만나게 되는 이 세상 대상들에 대해서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따라 '우리 마음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은 행랑채에 있지 말고 사랑채에 가있어야 합니다. '사랑채에 가있어야 한다.'는 것은 엡2: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행랑채에 있는 노예 상태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의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을 듣고 따라 나가는 것이고 맞이하는 것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세상이 아니었다면 쉽게 말해 타락이 없었다면, 우리 자식들이 눈앞에 보여도 마음이 쫓아가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에 자꾸 눈에 보이는 노예근성을 가지고 눈의 대문에 서서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므로 긍휼히 여기셔서, 엡2: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시는데 노예근성이 죽는 것이고, 엡2:5~6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노예적 기질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십자가를 보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채인 하늘에 앉히시는데 이것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려면 17시간이 걸리는데, 빛은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돕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므로, 그 길을 따라 가면서 우리 마음이 사랑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랑채에 머물지 말고 사랑채로 옮겨져야 하는데, 행랑채에 머물고 있는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달려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행랑채에 있으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근성을 죽이고,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사랑채에 앉혀주십니다. 사랑채인 하늘에 앉아 있으면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자꾸 뛰쳐나가지 않아요. 내 마음은 사랑채인 하나님 품에서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는 것들을 향하여 '네가 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오너라!'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뺏기 위해 '이리 오너라!'라고 외쳤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채인 하나님께 가서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던 가족, 직장의 모든 사람과 일과 사건에서 '네가 오너라!'라고 하십니다. '네가 오너라!'라는 말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있으므로 너는 이 뜻을 따라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실 때에 내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면 가르쳐주실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6~7절에 자연을 볼 때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규례를 이대로 지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뜻하는 바는 '눈에 보이는 어미 새를 가져가서 삶아 먹으면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보호'라는 말이 있지만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불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터가 좋으면 '예배당 지으면 좋겠고,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터가 '이리 오너라!'라고 부를 때 머슴인 것처럼 쪼르르 달려 나가서 '여기다 집을 지으면 좋겠다.'고 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사랑채에 머물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을 향하여 '네가 오너라!'라고 외쳐지실 것입니다. '네가 오너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없으면 땅과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집을 지으려고 하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큰코다칩니다.
모든 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네가 오너라!'라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우리 마음은 주님 따라 승천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채에 머

물러야 할 것입니다. 사랑채에 머물러 있으면 이러저러한 삶의 다양한 경우들에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인지를 본문이 얘기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네 노예근성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고 '이리 오너라!'라는 모든 외침에 '행랑채의 머슴처럼 쪼르르 반응하지 말고 사랑채의 주인의 아들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가서 살 때에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끊임없이 아내, 자녀 등 할 것 없이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며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에 쪼르르 나가서 반응하면 우리는 머슴이 됩니다. 이 머슴의 기질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혈압 약을 먹으면 혈압이 억제되는 것처럼 누를 수 있을 뿐인데, 십자가복음 약을 통해서 노예근성을 누르고 주님과 함께 사랑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십 번, 수백 번의 '이리 오너라!'라고 외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네가 오너라!'라고 당신의 뜻을 적용해 나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지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들인 저희를 사랑채로 끌어 들이셔서 자녀삼아 주셨으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자녀 됨을 드러내게 하시며, 행랑채의 머슴처럼 '이리 오너라!'라는 외침에 쪼르르 반응하는 노예적 삶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